

거주의 인간학 시론: 거주의 시학적 생태학적 정초

김 성 도 (고려대 언어학과 교수 & 영상문화학과 주임교수)

0. 들어가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도시화는 가히 전대미문의 속도로 진행되면서 오늘날 서울이나 상해의 도시 공간은 전통 건축의 모습과 역사적 장소들의 흔적을 완전히 소거시키고 탈근대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도시는 90년대 시작된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의 지속적 영향을 받으면서, 더 나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의 구비와 함께 증강도시의 새로운 도시 문명 양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첨단 기술의 파상적 이식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간의 문제이다. 이점에서 도시의 본질에 대한 성찰에 있어 인간의 거주의 본질에 대한 인간학적 탐구를 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지향하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의 구조, 기능, 속성이 무엇이건, 그것의 절대적 전제는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resilience)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같은 지속 가능성의 필수 요건은 보다 거주 방식의 인간학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거주의 인간학적 지평의 두 가지 주춧돌로서 시학적 토대와 생태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하며, 기본적으로는 하이데거의 거주철학, 이반 일리치의 거주기술시론, 프랑스의 동양지리학자 오귀스탱 베르크의 외쿠멘 개념에 의탁하여 논의의 열개를 구성하고자 한다.

1. 거주의 인간학적 조건 : 거주의 어원과 거주 기술의 고유성

‘거주하다’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habiter 는 그 어원이 라틴어 habere 와 habitare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동사 habiter 와 소유를 의미하는 avoir 사이의 친화성을 시사해주며, 즉 하나의 장소에 현존하는 것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것 사이에 설정된 심층적 관계의 특징을 밝혀준다. 프랑스어를 비롯해 다른 서양언어들에서 라틴어 habere 의 파생어들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라틴어 동사 habere 는 그 기원부터, ‘장소를 점유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었다. 아울러 이 같은 어원에서 첨가할 사실은 거주의 전유가 가능한 것은 바로 거주 공간의 습관적 근접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거주자의 삶의 방식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법률적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획득

의 차원이 아니라 공간이 그것의 거주자에게 고유한 것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거주’라는 한자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거주의 인간학적 의미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한자 ‘살 주 住(주)는 왼쪽에 사람 人(인) 변이 있다. 오른 쪽에 있는 부수 主(주)는 발음이다. 그것 자체가 ‘멈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거주한다는 것은 곧 걷는 것을 멈춘 인간 존재의 이미지를 표상하는데 이것은 한자의 어원에서 서 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 같은 연상적 계보에서 인간이 대지와 식물과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의 어원에서 우리는 정착된 유목민의 의미, 그 장소에 할당된 나무의 의미, 집의 의미가 밀접하게 분절되어 있음을 감지한다. 요컨대, 다음 절에서 살펴볼 하이데거의 거주 철학과 한자의 어원에서 인간 거주는 모두 흙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 거주 기술의 고유성과 그 외연

삶의 기술로서의 거주 기술 (the art of living)은 특별히 인간적인 행동 양식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특정 공간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다양한 거주의 기술들은 각각의 거주자에게 유일무이하며 고유한 삶의 스타일을 생산하는 효과를 갖는다. 살아가는 기술은 그것의 전체성에 있어, 사랑하고 꿈꾸는 기술이며 고통을 감수하는 기술이고 죽어가는 기술이며 따라서 각자의 삶의 스타일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든다. 거주는 거주자에게 한편으로는 특정 공간과 장소에서 그로 하여금 개성적인 존재 방식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고유한 흔적들 속에서 머무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거주자가 남긴 추억과 흔적을 통해 자신의 거주 공간을 표시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공간 점유 방식이다. 이점에서 거주되는 장소가 그 점유자의 삶의 방식이 스며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거주는 거주 주체의 친밀성과 은밀성을 전제로 한다.¹⁾ 그 거주 장소는 누구도 모방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거주자들의 특이성의 반영이 된다. 거주 기술이라는 표현은 질서 개념을 조직 (organization)이라는 의미와 결합시키고, 힘과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거주한다는 사실과 결합시킨다. 여기서 기술과 예술을 의미하는 art (techné) 라는 서구어 단어는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하나의 질서를 향하는 인간 활동과 결부된 일체의 본질적 관념들과 결합된 의미 작용들의 총합이다.

그런데 역사학자 이반 일리치 (Ivan Illich)의 통찰에 의하면, 거주 기술은 공통적 질서, 공간적 사회적 조직화를 겨냥하는 일련의 행정적 경제적 조치들과 표준 척도, 규제들, 규칙화에 의해 위협 받는다. 이 같은 구획 정비들의 착상과 적용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에 속하는 사실이며 그 각각은 하나의 권위 형식을 체현한다.

거주 기술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차원들이 서로 대립한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거주 방식에 하나의 권위적 틀을 설정하면서 거주자의 고유한 삶의 기술을

1) Ivan Illich, “L'art d'habiter”, in :*Dans le miroir du passé*, Conférences et discours 1978-1990, Paris, Descartes & Cie, 1994, p.66. (한국어 번역본, 이반 일리치 지음, 권루시안 옮김,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느린걸음, 2013.

위험한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생산된 질서로서, 이것은 거주자 자신에 의해서 형식화되는 것이며, 고유한 자유의 표현이 될 것이다.

거주자 각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공동체는 자신의 고유한 거주 스타일을 창조한다. 그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만들어가는 똑 같은 두 개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은 두 개의 공간에서 거주한다. 주택지와 공동구역, 즉 공유지가 그것이다. 이 같은 진입 문턱을 넘어서 확장되는 것은 이 같은 거주 기술에 의해서 모델화된다. 인간의 대지는 그 문턱의 양쪽 면을 넘어 확대된다. 그 문턱은 거주 기술이 창조하는 공간의 축이다. 이 쪽 면에는 자기 집이 있으며 다른 쪽에는 공유지가 존재한다. 그 문턱은 거주 공간의 사유하기 위한 근원적 요소를 성립하며 거주하는 공간 한복판에서 경계선 개념을 제기한다.

한편, 거주는 빈도수, 사용, 친숙성 등의 개념들에 기초하며 이 같은 요소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의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함의한다.

30년 동안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산 집과 동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깊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반복되는 근접성의 조건에 따라, 거주 공간은 반드시 거주자의 척도에 따른 공간이다. 즉, 거주자가 이동을 통해 쉽게 주파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감각들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편에서 거주자는 3차원 공간 속에서 제 요소들을 질서화하고, 조직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물리적 공간을 그것의 문화에 따라, 주관적 기준들의 총합에 따라 포착한다. 자신의 이해관계, 신념들, 관념들, 노력들을 결합시키면서 말이다. 거주자는 그렇듯 자신의 거주 공간과 지역들을 공간적, 지적, 정서적 의미에서 영토들을 구획한다. 그는 공간과, 관념, 감정과 더불어서 근접성의 정도를 정의한다.

2. 주택 소비자에서 거주 주체로 : 안락함의 서비스와 웰빙의 경계를 넘어

안락함 또는 쾌적함의 개념이 갖는 중의성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상이한 정의들 속에서 지각된다. 그 결과, 안락함은 '웰빙'을 제공하는 물질적 편리성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거나 물질적 생활의 편리함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상이한 정의들은 안락함, 웰빙 (또는 행복), 편리성을 연관 짓고 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세 개의 용어들은 어느 정도 교환이 가능하다. 지적 도덕적 의미에서, 안락함은 평온함의 개념과 결합된다. 그것은 정신의 웰빙과 그것의 평온함을 마련해주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경멸적인 의미에서는 평온함의 과잉은 정신적 생명력과 활력에 해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함은 결국 인간 존재의 일정한 해방과,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무기력 사이에서 주저한다. 안락함은 따라서 필연적 조건으로서 나타나며, 때로는 실존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가 이 같은 중의성에

다, 안락함이 지칭하는 것의 상대성을 첨언해야 한다. 안락함의 평가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변화한다.²⁾ 안락함은 늘 최초 상태에 견주어서 측정되고, 다른 사람들에 견주어 평가된다. 여기서 E.Crowley의 저서, [안락함의 발명] (The invention of comfort)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18세기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이 개념의 시초를 분석하고 있다.

영국 건축가 왕립 연구소에서 1984년 행한 [거주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반 일리치는 거주의 기술을 파괴하는 상이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가 말하는 거주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웰빙의 경제에 대한 그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웰빙의 경제는 웰빙 또는 행복이 일정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그것은 인간들에게 웰빙의 여건을 제공하고, 이것을 위해, 인간들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그것은 빈번하게 미리 정해진 욕망들을 만족시키고, 해결책들로서 미리 제안된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집합을 구비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반 일리치의 비판을 경청한다면, 안락함, 웰빙, 질서의 이름 아래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이 같은 방식은 소비 방식을 삶의 기술들의 영역까지 확대시켜, 종국에 가서는 그 같은 살아가는 기술들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진정한 거주의 기술은 웰빙의 경제에 의해서 거의 제거된다. 그 결과 주택에 그저 수동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결코 삶의 기술이 필요치 않으며 오직 편리함을 제공하는 아파트만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고통의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의학적 도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죽는 기술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인간 존재의 힘과 잠재력의 감소는 거주자 단지 주택의 소비자로서 환원되는 것에 의해서 반영된다. 그들 스스로가 축조한 공간을 점유하는 거주자들은 그들의 의도에 부응하여 생산된 건설물들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체류하는 사람의 형상에 의해서 대체된다. 이들은 주택의 소비자들로서 등록된다. 요컨대 주택의 편리성을 소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환경의 틀을 스스로 변형시킬 수 있는, 즉 자기 것으로 전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한 채, 그를 위해 마련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주택은 기획되고, 건설되고 장비가 마련된다. 이 같은 책임 인수는 주택 체류자의 수동성을 생성한다. 거주자는 그가 거주하는 바로 인해 주체이며, 주택 체류자는 그저 객체일 뿐이다. 주택 체류자는 자신의 거주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 결국, 수동적 주택 체류자는 이반 일리치가 거주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공동체적 사회적 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웰빙의 경제는 욕구들의 축조, 욕망들의 축조, 개인들 자신들의 축조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들의 고유한 조건들, 실천들, 갈망들을 참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효용성과 쓸모 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적지 않다. 사용자와 하나의 오브제 사이에 설정될 수 있는 굴종 또는 예측성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오브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행동 양식에 진입하도록 강요하고, 사용자는 오브제의 기능 작

2) cf. Muriel Cahiez, "Les conditions de l'habiter", Mémoire, Art et histoire de l'art, 2014,

동에 예측화된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예측화의 관계이다. 이 같은 추론의 연장선상에서, 오브제들의 두 가지 본성들 사이에서 구별을 할 수 있다. 도구들(instruments)과 기구들 (appareils)이 그것이다.³⁾ 도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오브제이다. 즉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봉사자이다. 도구들은 우리에게 준비되거나 완전한 반응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를 미리 수립된 지역들 속에 갇혀 놓는다. 반면 기구는 서비스의 논리, 욕구의 만족, 또는 욕망의 만족이라는 논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의 논리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가능한 관계를 제공한다. 하나의 기구는 그것의 성립에 있어서 다양한 물음들을 제기한다. 그것은 테크닉과 관련된 능력들의 분절을 제안한다. 도구들과 더불어, 그 관계가 직접성, 비매개성의 차원에 속한다면, (그것이 신속할수록 사용자는 만족한다), 하나의 기구의 사용은 친숙함의 시간을 요구하고, 가능하고 무안한 조합들의 발굴 시간을 요구한다. 이점에서 기구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창의성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도구와 기구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을 통해 테크닉에 대한 두 개의 개념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테크닉이 일정한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의 예측되고 결정된 결과를 생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테크닉이 하나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생산의 여정 속에서 체험을 제안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공간과 맺는 그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 체류자 또는 소비자는 그저 일정한 수동성을 불러온다. 이 두 개의 테크닉의 방식들은 개인에게 동일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하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테크닉의 주체가 될 것이며, 능동적 작동주체가 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테크닉의 객체가 될 것이다. 자동화 방식의 일반화에서, 힘들의 전복이 존재한다. 테크닉은 생산과 발견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찰과 반성의 수단이 아니라, 능동적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일체의 신체적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일정한 방식에서, 우리가 테크닉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이 우리를 점유하는 형국이 된다. 테크닉은 인간 잠재력의 축소와 팽창 사이의 긴장의 장이 될 것이다. 요컨대 어떤 테크닉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거주를 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다른 테크닉들은 안락함과 안전에 대한 주된 관심과 근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주택 소비자로 남게 만든다. 인간이 자연의 속박에서 점차적으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거세시키는 이 같은 테크닉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와 체험 사이에 존재하는 테크닉의 긴장은 특히 가정의 세계에서 두드러진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삶과 실존 사이의 긴장의 장소이다. 테크닉과 안락함의 결합은 생활 장소를 본질적으로 은신처로서 파악하고, 거주를 단지 잠자는 곳으로 환원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삶과 실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축소시킨다. 삶과 실존을 분절시키려는 이 같은 시도로부터 살아가는 기술 (예술)은 그 표현이 될 것이다. 살아가는 기술들은 생명과 관련된 활동들 한 복판에서 실존에 자리를 내주는 방식들

3) Pierre-Damien Huyghee, Définir l'utile, conférence à l'IFM, Paris, 2011.

을 장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하이데거로부터 배우기: 거주와 시학을 위한 시금석⁴⁾

1951년 8월 5일 하이데거가 독일 남부의 한 산장에서 소수의 건축가들을 상대로 연설한 특별 강연, ‘집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는 최근 들어와 많은 현대 건축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 이 텍스트는 두 개의 핵심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하나,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짓기는 어떻게 거주하기에 속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하이데거는 거주한다는 것은 개인과 세계 사이의 평화로운 화해라고 말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가 인간학적 거주와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을 집짓기와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4방 세계의 조건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는 다소 형이상학적이거나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을 적어본다.

“인간이 이 땅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들 앞에 머물러 있는 한, 오직 인간만이 죽고 혹은 정확히 말해 늘 죽는다. (...) 넷의 하나로 포개짐을 우리는 사방 (das Geviert)라고 명명한다. 죽은 자들은 거주하고 있기에 사방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소중한 보살핌이다.”⁵⁾

하이데거는 거주하는 보살핌의 사차원적 존재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치사자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땅을 구원하는 한에서 거주한다. 둘째, 치사자들은 하늘을 하늘로서 받아들이는 한에서 거주한다. 셋째, 치사자들은 신적인 것을 신적인 것들로서 기다리는 한에서 거주한다. 넷째, 치사자들은 곧 죽음을 죽음으로서 흔쾌히 맞이할 능력이 있다는 그들 고유의 본질로 인해 훌륭한 죽음이 존재하도록 이끄는 한에서 거주한다.

하이데거가 전지는 핵심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거주는 건축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건축가들이 미학적 선호와 우선권에 따라 건축의 성격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흐른 나머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하이데거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거주라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부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축이라는 말 대신 집짓기와 거주하기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그의 말을 환기해보자. “집짓기에 대해 사유하는 것은 건축적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집짓기를 위한 규칙만을 제시한다.”⁶⁾ 하이데거는 건축을 이미지화와 건설 관리를 위한 규칙과 결부시키는 건축적 관념들을 문제삼았는데, 이 같은 관념들은 일부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의 소비를 위해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건물 세우기는 건축이나

4) 본 절은 필자의 저서 [도시 인간학]에서 부분 발췌하여 편집했음.

김성도, [도시 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pp.722-741.

5)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옮김,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년, p.191.

6) Heidegger, M,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71, p.145.

공학 건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⁷⁾

요컨대, 하이데거는 건축에 대한 개념화가 충분치 않다고 보았으며, 건축의 미적 평가는 인간 거주에 중요한 차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이라는 단어 대신, ‘집짓기’와 ‘거주하기’라는 단어들은 하이데거로 하여금 미학의 우선권에 견주어 건축의 거주와 경험의 차원을 사유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하이데거는 현대의 생활양식과 거주하기의 비교를 시도하기 전에 이 시론을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시작한다.

“다리와 대형 운동장과 발전소는 건물이지만 거주지는 아니다. 철도역과 고속도로, 댐과 시청 홀은 건설되었으나 거주하는 장소들은 아니다. (...) 주거지 건물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오늘날의 집들은 잘 기획되어 있으며, 저렴하고, 외부의 대기, 빛, 태양에 개방되어 있으나, 집들 그 자체에서 거주하기가 발생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⁸⁾

하이데거의 이 말은 전통의 뿌리와 서사를 상실한 탈근대도시의 비장소성을 지적한 프랑스의 인류학자 오제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건축 공학적 차원에서 대형 백화점, 국제공항, 대규모 놀이시설 등에서 편리함과 기능성을 경험하나, 거주하고 싶은 장소들은 아니다. 오제에 의하면 그곳들은 인간학적 지평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자신이 비판하는 기술 관료적 단어들을 집중조명서 거주하기와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윤곽을 제시한다. 기능적 탁월성, 지속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 등은 거주하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체계화된 건설 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이름 모를 소비자를 위해 건축 상품을 내놓은, 그저 상품으로서의 건물을 제공할 뿐이다. 여기서 그가 문제 삼는 것은 건물을 단지 소비자를 위한 생산물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집짓기는 단지 거주하기의 수단이나 길이 아니다 집짓기는 그것 자체가 이미 거주하기이다.”

하이데거의 사방 세계 개념을 세계에 대한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하려 할 때, 난해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그것은 물리적 차원이거나 사회적 차원이나 문화적 차원의 구조의 측면에서 사유한다.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이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세계는 과학의 관념보다는 실재하는 ‘사물들’로 구성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진술한다. “땅은 땅의 열매에 영양을 공급하고, 물과 바위와 식물과 동물을 관리하는 건축하는 전달자이다. (...) 하늘은 태양의 길이며 달의 방향이고 별의 반짝이는 빛이고 한 해를 이루는 계절들이고 밤의 우울함과 불빛이며 날씨의 관용과 혹독함이고 표류하는 구름과 높은 하늘의 푸른 깊이이다.” “신들은 하느님의 손짓하는 전달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인류이다. 그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치사자라고 불린다.”⁹⁾

7) 위의 책, p.159.

8) 같은 책, pp.145-146.

9) 같은 책, p.42.

4. 거주의 시적 본질과 근대 건축의 반 인간학적 성격

인문학자로서 거주의 시학을 다룰 때는 대지와와의 생태 상징적 관계로부터의 세계 의창조라는 일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물들의 말로 펼쳐지는 것의 특수한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학 비평 뿐만 아니라, 창조와 직결된 물음들을 다루는 일이 될 것이다. 언어 일반의 역할, 특히 시적 언어의 역할, 거주 가능한 세계의 구성에서 시적 언어의 역할과 관련된 물음들을 말한다.

거주의 으뜸 시학이라는 표현은 말의 실천에 선행하는 시적 차원이 존재함을 존재한다. 즉, 문학이라는 언어의 특수한 사용에 선행하는 시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풀어 말해 시는 이차적이며, 오히려 세계의 시적 차원이 으뜸이다. 이것은 사물들 자체에 시적인 것이 존재함을 상정한다.¹⁰⁾ 또는 최소한 사물들과 우리의 일차적 관계 속에 시적인 것이 존재함을 함의한다. 우리가 흔히 시적 풍경이라는 말 하는 것은 그 같은 생각을 잘 표현해준다. 왜냐하면 시적 풍경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어원적 의미에서 시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물들이 거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물들을 구비하는 우리의 방식 속에 시적인 것이 존재한다. 예컨대, 봉분을 형성하기 위해 돌들을 쌓아놓는 것은 시적 몸짓이다. 장소의 시화(poétisation)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용 용법에서 시적인 것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취한다. 시적인 것은 특정 감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또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일정한 거점들이나 현상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산에는 시적인 것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상들이 그곳에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변화, 우람함, 구름, 천둥, 비, 서울의 절대적 기표이다. 시학은 이 같은 현상들을 해석하려는 창조적 활동이 될 것이다. 한 문화의 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언어의 작품은 이 같은 비언어적 활동들 속에서 표현되는 으뜸 시학의 특수한 양태성에 불과할 것이다. 시적인 것과 시학은 따라서 시외 문학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시와 문학에 선행하며 그 틀을 넘어설 것이다. 이 같은 개념화는 동양 전통에 기초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시적 예술은 시를 세계에 맞서 몸으로 느끼는 감흥의 표현으로 삼았다. 그리고 시 작품들을 비교될 만한 하나의 감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한다. 그런데, 근대성의 일정 부분은 시와 시학의 확장된 개념과 단절될 것을 주장했다. 세계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시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언어적 활동의 산물들을 투영했기 때문이다. 즉, 일차적인 것은 언어 시스템이며 인간들은 그것의 창조자들이라 보다는 예측된 주체들

10) Michel Collot, "De la géopoétique", in: L'habiter dans sa poétique première, sous la direction de Augustin Berque, Alessia de Biase et Philippe Bonnin, Editions Donner Lieu, 2008, pp.310-323.

이다. 외부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언어 예술의 자율화가 바로 근대성의 주된 경향들이다.

바로 이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서양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에, 적지 않은 시인들과 이론가들이 월터 벤야민의 유명한 표현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즉, 시를 인간 거주 의 한 가지 양태 뿐 만 아니라, 본질적 조건으로 삼고 있다. 현대 시의 이 같은 심오한 경향은 지리 시학 (géopoétique)라는 신조를 생산했다. 그 단어는 근대적 이성이 엄격하게 분리시켜놓은 두 개의 현실 차원을 결합시켰다. 인간 정신의 활동과 물리적 공간 사이의 결합을 추적하면서 그것은 생각하는 사물과 물리적 외연 사이의, 데카르트 구별을 문제시 삼는다.

근대 건축 사조는 거주 현상의 일종의 세계화를 장려했다. 그것은 경제의 세계화에 견주어 대략 50년을 앞서 진행되었다. 근대적 건축 사조는 보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의 축조를 위해 작업했다.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욕구와 필요를 갖고 있다는 기본 전제를 채택하면서, 근대 건축과 근대 도시 계획에서 지역적인 것 (local)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도처에서 동일하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를테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1970년대 타시켄트에 건설할 때나, 아마존 숲에 있는 브라질리아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편자브의 찬디가르, 또는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에 건물을 세울 때 동일한 이론적 기초를 사용하였다.

‘거주하는 기계’ (la machine à habiter)는 도처에서 근대성의 설립 창시자들, 르 코르뷔지에, 오스카 니메이어 (Oscar Niemeyer), 미스 반 데어 로헤 (Mies van der Rohe), 월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 등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건축적 형식들 속에서 확산되어 나갔다. 사실상, 이들 근대 건축의 설립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당면할 표류와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대지를 벗어난 (프랑스식 표현을 빌려 말하면, hors sol) 건축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근대 건축은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여러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강렬한 기쁨을 제공했다. 이들 차세대 근대 건축가들 가운데서 명민한 몇몇 사람들은 근대 건축의 위기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 이를테면 필립 존슨은 1968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근대 건축은 하나의 완전한 실패이다. (...) 우리의 도시들은 지난 50년 전에 비해서 더 추해졌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다른 건축가 James Stirling 은 1974년 예일 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근대 건축의 99 %는 따분하고, 진부하며 건조하고 부조리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같은 회한들은 충분치 않았으며, 근대 건축의 추함과 질병은 창궐하였다. 현재까지 근대 건축이 적용된 최근의 현장들 가운데 중국은 자신의 건축 문화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그것을 일종의 건축과 도시 계획의 영도(zero degree) (이를테면 무색무취의 국적도, 문화도 없는 중간적 건축과 도시계획)로 대체시키는 데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건축과 도시 계획의 ‘영도’라는 용어는 근대 도시 계획의 원칙들의 완전한 퇴화와 변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먹고, 잠자고, 순환하고,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는 것 등의 생물학적 기능들로 환원되어, 거주라는 인간학적 현상은 그 내용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결여하고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그 같은 거주 기계를 사용할 주민들의 문화적 유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장소의 특수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지역의 지리와 시학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세계와의 공 현존 (co-presence)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리적 시적 입장은 건축적 대상이 맥락에 견주어서 자율성과 단절하게 될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건축이 지향해온 그 같은 자율성이란 사실상 세계와의 단절, 즉 일종의 자폐라 할 수 있다. 근대의 이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건축 기획과 도시 계획은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탐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와 더불어 맺어야 할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따져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¹¹⁾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 대지위에서 인간이 시인으로서 거주하는” 장소를 수립하는 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탐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관점과 입장은 결코 단 하나의 문화, 단 한명의 천재, 특정 건축가로부터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건축과 도시 계획 내부 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가능하다.

지리적 시적인 감수성을 체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깨닫게 된다.

건축 사상은, 그것이 세계와 맺는 관계에 있어 다양한 문화들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영예롭고 엘리트적인 근대 건축 사조의 보편 주의적 비전은 그것의 파급결과로서 지역주의가 아닌 지역적인 것이라는 단어를 건축가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은 지역주의, 또는 토속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저급한 의미로 평가절하하고 가장한 한 가장 사소한 의미로 축소시켜버렸다. 그 같은 근대적 건축 사조의 과도한 축소를 통해 지역적인 것 (local)이라는 단어는, 전통을 유일무이한 준거 속에서 세우려는 특정 문화의 뿌리들에 향하는 것, 더욱더 편협한 것 속에서 의미되었다. 단순화에 혈안이 된 진부한 건축 문화는 그럴싸한 수사의 논리로 무장하여, 이원적 사고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인간들과 건축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역사의 방향에서 즉 근대 사조의 유산자들로서 스스로를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를 정지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젊은 건축학도들은 이 같은 이 같은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도식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를 떼면 건축의 본질, 그것의 제작과 변형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심층적 물음을 던지는 작업을 회피한다. 건축 인류학, 또는 건축 인간학은 바로 그 같은 단순주의를 일소시키려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최근의 건축 생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징후들은 근대성/전통이라는 그 같은 단순화된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적 차원’ (local)을, 전통의 토속적인 비전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다시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같은 물음은 현대적 건축 기

11)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Jean Paul Loubes, “Géopoétique et architecture située”, in: *L’habiter dans sa poétique première*, sous la direction de Augustin Berque, Alessia de Biase et Philippe Bonnin, Editions Donner Lieu, Paris, 2008, pp.325-341,

획에 대해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건축이 지역적인 것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인류학적 해석을 통해 단순히 전통성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의 것을 가능한 그것이 현재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건축 기획에 작동시키는 전통의 변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¹²⁾ 즉, 그것은 건축 기획이라는 제작 과정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문화적 유산을 재해석하는 작업으로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결코 한물간 형태들을 다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전통의 변형을 통해 진정한 연속성의 실타래가 짜질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형의 구축을 그의 역사와의 단절과 더불어 설계를 해왔던 근대 건축 사조에 있어 이 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탐구 대상이 아니었다.

5. 거주 시학의 생태학적 함의 : 거주와 인간학과 지속가능한 도시 ¹³⁾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주거 양식과 형태를 취하건 인간학적 차원에서 거주와 문제를 함의한다.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자연 세계, 사회 세계, 내면성의 세계가 그것이다. 프랑스의 세계적 인문지리학자이며 동아시아 공간 사상의 석학인 베르크의 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팽배하는 거주 형태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21세기 초 목도되고 있는 도시 공간의 무모한 팽창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생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둘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심미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도시 문명의 지속불가능성이라는 주제는 도시 인문학의 토대인 윤리성, 심미성, 생태성과 접맥된다. 오늘날 진행되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은 본질적으로 소비 중심의 문명 양식과 결부되어 있으며, 도시 공간은 엄청난 공간 소비, 에너지 소비, 경관의 소비, 사회적 가치의 소비로서 결코 창조적이지 않다.

이점에서 베르텐의 에쿠멘느 시학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거주와 인간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도시 생태학의 인식론적 초석을 놓아줄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담고 있다. 그의 생태학적 사유는 지리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쿠멘은 ecoumene 은 그리스어 단어 오이쿠네메 oikoumené에서 기원하며, 땅과 인간성을 만드는 핵심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대지는 인간적이며 인류를 지상의 것으로 만드는 실체이다.

에쿠멘은 인간학적 차원과 관련해 인간 환경의 총화이며, 동시에 그 조건을 형성

12) 위의 논문, ppp.329-330.

13) 본 절은 필자의 저서 [도시 인간학]에서 부분 발췌하여 편집했음.

김성도, [도시 인간학], 안그래픽스, 2014, pp.742-748, pp.912-917.

한다. 그것은 생태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며 곧 인간 존재의 처소이다. 베르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에쿠멘은 하나의 관계이다. 인류가 지상의 외연과 맺는 생태학적, 기술적, 상징적인 관계이다.”¹⁴⁾

베르크 교수는 환경 윤리라는 표현 대신 ‘에쿠멘’의 윤리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명분을 제시한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인류가 지상의 외연과 맺는 관계 속에는 늘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다른 살아 있는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과 맺는 관계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모든 생명체 종은 하나의 환경을 갖고 있으며 인류 역시 살아 있는 종으로서 고유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직 인류만이 하나의 에쿠멘을 소유한다.’¹⁵⁾

그는 이렇게 논지를 계속한다. “에쿠멘은 우리가 사는 지구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의 장소로서의 지구이다.”¹⁶⁾

지구는 에쿠멘처럼 우리를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조건이다. 에쿠멘 없이는 인류는 그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이라는 데 있다. 선과 악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같은 구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베르크는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삶과 생태학적 시스템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삶의 영역에 도달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에쿠멘은 생태학의 물음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윤리의 문제이다. 에쿠멘은 요컨대 인류와 지상의 외연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윤리에 관한 것이다.”¹⁷⁾

도시 공동체 (polis, cité)는 단지 물리적 도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모두 도시 공동체를 의미하는 ‘키비타스’ civitas, 폴리스와 물적 집적체로서의 도시 공간을 의미하는 토포스 topos/urbs, astu를 구별했다. 도시 공동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cité는 시민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키비타스에서 왔다. 시민은 이 같은 조건에 결속된 권리를 누리며 그것이 바로 도시 권리 droit à la ville 이라는 프랑스 표현에서 나타난다.

그 같은 존재의 보금자리는 바로 시민의 자격civitas 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공동 시민이다. 그 용어는 공동체적 관계의 상호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시민들의 집단은 바로 그들의 키비타스이며, 상징적 체계이고, 동시에 인간의 총화이며, 그것의 물질적 요건을 갖춘 영토이다. 이점을 통해서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사실, 즉 지리는 존재론이며 존재론은 지리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어원적 발굴을 통해, 오늘날 도시 정비와 계획, 경관 조성들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화화 실현으로부터 구체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획한다는 것, 도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 그거은 결코 특정 오브제, 즉 물체를 생산

14) Berque, A. Ecoumène :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Editions, Belin, 1987, p.17.

15) Berque, A. Etre humain sur la terre: principe d'éthique de l'écoumène, Gallimard, 1996.

16) 위의 책, p.12.

17) 같은 책. p.13.

하는 기술 전문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취향을 진술하는 심미적 사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 공간의 계획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도시 공동체의 법과 규범에 따라서 실현되어야 하며 공통의 이상형에 기초하며 정당화될 있는 명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가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밀실 계획안, 일부 엘리트만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의 과시적 사용, 아울러 기술 관료의 독단에 의한 도시 계획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도시 공간을 축조하는 방식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민적 차원에 속한다. 즉, 도시 공간의 건설은 그것의 최고 수준에서 미래의 주인 공인 아이들을 포함해 시민 교육의 대상이어야 하며, 민주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Atkins, T. et Rykwert, J. (dir.), *Structure and meaning in human settlements*, (Philadelphi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2005).
- Berque, A., Bonnin, Ph., et Ghorra-Gobin, C. (dir.), *La Ville insoutenable*, (Paris: Belin, 2006).
- Berque, A.,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mediance as a ground of meaning in architecture," in Atkins, T. et Rykwert, J. (dir.), *Structure and meaning in human settlements*, (Philadelphie: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2005), pp.97-106.
- Berque, A., (avec l'architecte maurice Sauzet), *Le Sens de l'espace au Japon. Vivre, penser, bâtir*, (Paris: Arguments, 2004).
- Berque, A., *Écoumè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Paris: Belin, 2000).
- Berque, A., *Être humains sur la terre. Principes d'éthique de l'écoumène*, (Paris: Gallimard, 1996).
- Berque, A., *Médiance, de milieux en paysages*, (Paris: Belin/RECLUS, 1990, 2000).
- Choay, F., *L'Urbanisme, utopie et réalités. Une anthologie*, (Paris: Seuil, 1965).
- Gautier, J-F., *L'Univers existe-t-il?*, (Arles: Actes Sud, 1994).
- Kanaya, O., *Sôshi (Zhuangzi)*, (Tokyo: Iwanmi bunko, 1994).
-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8).
- Bensa, A., *La fin de l'exotisme*, (Anacharsis, 2006), p.326.
- Berque, A., *Écoumène*, (Paris: Belin, 2000).

- Blake, P., *L'architecture moderne est morte à Saint-Louis, Missouri, le 15 Juillet 1972 à 15h32 (ou à peu près)*, (Paris: Éditions du Moniteur, 1980).
- Bosco, H., *Malicroix*, (Paris: Le Livre de Poche, 1966).
- Garraud, C., *L'idée de nature dans l'art contemporain*, (Paris: Flammarion, 1994).
- Godin-L. Mühlethaler, Ch., *Édifier. L'architecture et le lieu*, (Paris: Verdier, 2005).
- Heidegger, M., *Essais et conférences*, (Paris: Gallimard, 1958).
- Jenks, C., *Post Modern Architecture*, (Academy Éditions, 1977).
- Laugier, M. A., *Essai sur l'Architecture*, (Brussel: Mardaga, 1979).
- Loubes, J-P., "La cabane figure géopoétique de l'architecture," in *Cabane, cabanons et campements*, (Université de Provence-CNRS: Éditions de Bergier, 2001).
- Loubes, J-P., "Architecture et géopoétique," in *Géopoétique et Arts Plastiques*, (Publication de l'Université de Provence, 1999).
- Loubes, J-P., "Espace et géopoétique ," in *Le monde Ouvert de Kenneth White*, (Bordeaux: Presse Universitaires, 1995).
- Norberg-Schulz, Ch., *L'Art du lieu*, (Paris: Ed. Le Moniteur, 1997).
- White, K., *Le Plateau de l'Albatros*, (Paris: Grasset, 1994).
- White, K., *L'esprit nomade*, (Paris: Grasset, 1987).
- White, K., *La figure du dehors*, (Paris: Grasset, 1982).
- White, K., *Une stratégie paradoxale*, (Bordeaux: Presses Universitaires, 1998).